

## 桂枝湯 加味方の 알레르기 鼻炎에 對한 治驗報告

金璟濬\* · 蔡炳允\*\*

### ABSTRACT

#### The effect of GyejitangGamibang(G.G.) on allergic rhinitis

Kim Gyung-jun · Chae Bhung-yoon

This study evaluates the effect of G.G.(桂枝湯 加味方) in patients with allergic rhinitis which deteriorates with cold, who visited Oriental hospital of Kyungwon University from march to september in 1996 and found the symptoms were improved significantly.

1. G.G.(桂枝湯 加味方) was prescribed for the patients with sneezing and more than 80% of patients showed improvement

2. Oriental treatments of allergic rhinitis have been showed relative good results and more constructive study and clinical report are necessary.

---

\* 暎園大學校 韓醫科大學 外官科學 敎室

\*\*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外官科學 敎室

## I. 緒 論

생체가 항원(antigen)에 접촉되어 感作(sensitization)되면 그 물질에 대한 항체(antibody)를 생산하며 다시 동일한 물질이 침입하게 되면 두 가지의 상반되는 반응을 나타내는데, 하나는 물질의 有害性を 弱화 또는 中化시키는 방어반응 즉, 면역반응(immune response)이고 다른 하나는 생체에 해로운 발진, 쇼크 등의 과민반응(hypersitivity reaction)으로<sup>1)7)8)</sup> 근래에는 알레르기에 대한 보편적인 개념을 과민반응이란 용어와 동일시하고 있다.<sup>1)4)7)8)12)20)</sup>

알레르기를 5개의 유형으로 나눌 때, 알레르기성 비염은 肥滿細胞 표면의 IgE와 항원의 결합으로 화학적인 매개물이 遊離되어 일어나는 제 I형과 세포성 면역에 해당하여 T 임파구에 의해 매개되는 제 IV형에 속한다.<sup>1)3)4)17)</sup>

알레르기성 비염은 발작성 재채기, 水樣性 鼻漏, 鼻閉塞의 3대 증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아울러 眼痒, 羞明, 眼充血, 耳痒, 前頭痛 등의 증상이 병발하기도 하는 질환으로 한의학에서는 鼻嚏, 噴嚏, 鼻飮의 범주에 해당한다.<sup>1)3)8)9)19)</sup>

알레르기성 비염을 유발하는 因子로는 우선 생체에 대한 항원(塵埃, 花粉, 동물의 털 등)과 같은 吸入性 因子와 한냉한 기후 조건과 같은 氣象的 因子가 있고 그 밖에 감염, 영양결핍, 음주, 스트레스, 자율신경실조, 유전 등이 이 질환을 불러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sup>3)5)28)</sup>

특히 최근 대기오염을 비롯한 자연

환경의 악화와 더불어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증가하는 것은 이들 양자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치료법에 있어 기본원칙은 辛散解表法이나, 증상에 따라 火邪上炎時 淸火시켜야 하고 形寒飮冷時 辛溫散寒해야 할 것이며 陽氣虛時 補元陽함이 마땅하다.<sup>26)28)</sup>

최근에는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성과물로서 加味通竅湯<sup>18)</sup>, 黃連通聖散, 加味防風通聖散<sup>14)</sup>, 通關散, 荊芥連翹湯加味<sup>15)</sup>, 小青龍湯 등의 투여시 본 질환에 대한 有意성이 이미 보고된 바 있다.

桂枝湯은 傷寒論의 辨太陽病脈證并治上에 기재되어 있는 처방으로 桂枝, 芍藥, 甘草, 生薑, 大棗의 5가지 약물로 組成되어 있는데 그 主治證은 頭痛, 發熱, 汗出, 惡風, 舌苔薄白, 脈浮緩 등이며 임상에서는 桂枝湯을 일반 감기 및 유행성 감기의 초기, 手足多汗症, 産後 表虛發熱, 血管痙攣, 두드러기, 피부 소양증, 虛寒性 胃痛 및 痙攣性 腹痛, 血管性 頭痛 등에 응용하고 있다.<sup>21)29)</sup>

이에 본인은 桂枝湯에 葶藶子 6g, 蟬蛻, 烏梅, 防風, 辛荊 各 4g을 加하여 寒冷한 조건에서 증상이 심해지는 알레르기 비염에 투여한 결과 양호한 치료효과를 관찰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그 證例를 보고하는 바이다.

## II. 對象 및 方法

### 1. 對象

1996년 3월부터 1996년 10월까지 暎園大學校 韓方病院 眼耳鼻咽喉科에 來院한 알레르기 비염 환자중 寒氣에 露出時 증상이 심해지는 6명(남자4명, 여자2명)을 對象으로 했다.

### 2. 方法

약물치료를 위주로 했으며 경우에 따라 침치료와 광선치료도 병행하였다. 침치료시 經穴은 風池, 迎香, 上星, 合谷, 太淵, 尺澤, 太谿, 外官穴 등에서 選穴, 施術하였고 적외선(Infra - red)을 鼻腔內에 照射하였다.

## III. 證 例

### 證例 1

姓名 : 이 O순, 만 39세, 남.

主訴 : 鼻流涕, 鼻塞, 噴嚏, 眼痒, 時時耳痒, 咽喉 不快感.

發病日 : 1993년경(甚化).

過去歷 : 10여년전 알레르기성 천식 Dx.(현재 喘鳴音 有).

家族歷 : 아들-알레르기 비염.

現病歷 : 39세 건강한 체격의 남환으로 3-4년 전부터 한기에 노출시 증상이 두드러지는 알레르기성 비염이 심화됨. local ENT에서 검사상 집먼지 진드기 등이 항원으로 판정. 脈象沈細, 舌淡少苔, 음식의 嗜好는 喜冷이 있으며 小便頻數, 殘尿感이 있었음. 96년 9월 5일 1차 내원시 小青龍湯合玉

屏風散을 7일간 투여, 반응을 본 결과 別無好轉하여 9월 14일 2차 내원시 桂枝湯 加味方을 10貼 투여하였음. 9월 23일 3차 내원시 증상이 전반적으로 호전되어 本方을 96년 10월말 현재 지속적으로 투여중.

### 證例 2

姓名 : 주 O환, 만 33세, 남.

主訴 : 鼻流涕, 鼻塞, 噴嚏, 眼痒 或 灼熱感.

發病日 : 1995년 9월경.

過去歷 :

20여년 전부터 脫肛증상 있었고 한차례 수술경험(현재 時時出血 有).

5-6년 전부터 手足掌 多汗증세, 別無治療.

家族歷 : 없음.

現病歷 : 33세 건강한 체격의 남환으로 1년여 전부터 아침과 저녁의 한기에 노출시 鼻流涕, 鼻塞등의 증상이 심화되었으며 약 1개월 전부터는 안구의 소양, 작열감과 眼淚가 나타나기 시작함. 양약의 간헐적인 복용의 별무치료. 96년 4월 초 1차 내원시 葛根解肌湯 10貼투여, 2차 내원시 微好轉 상태였으나 만족스럽지 못해 桂枝湯 加味方으로 變方했음.

96년 6월말 까지 4회에 걸쳐 지속적 투여 결과 양호한 치료결과 보임.

### 證例 3

姓名 : 김 O영, 만 24세, 여.

主訴 : 鼻塞, 鼻流涕, 噴嚏, 時時眼

痒.

發病日 : 1995년 12월경.

過去歷 : 없음.

家族歷 : 부친- 알레르기 비염.

現病歷 : 24세 약간 마른 체격의 여환으로 평상시 건강하던 중 상기증상 발생, local ENT에서 알레르기 비염 진단 후 간헐적인 치료 받았으나 별무효과하여 96년 5월에 본원에 1차 내원함. 먼지가 많은 지하 공간에서 작업할 때와 찬 공기가 많은朝夕에 증상이 심화된다고함. 환자는 변비가 약간 있었으며 음식의嗜好상태는 喜冷, 舌質은 淡紅했으며 微白苔가 보였음. 1차 내원시 보험약 人參敗毒散을 1주간 투여하면서 침치료를 병행했으나 별무호전하여 2차 내원시 加味防風通聖散을 투여, 역시 별무호전하여 3차 내원시桂枝湯 加味方을 투여한 결과 微好轉 상태를 보여 1개월여 계속 투여하면서 침, 광선치료를 병행하였음.

#### 證例 4

姓名 : 백 O범, 만 15세, 남.

主訴 : 鼻塞, 鼻涕清涕 或濁涕, 噴嚏, 扁道腫大, 時時 眼充血.

發病日 : 1994년 초.

過去歷 : 없음.

家族歷 : 없음.

現病歷 : 15세 보통 체격의 남환으로 94년 초부터 遇寒則 甚해지는 鼻塞 등의 증상이 나타났으나 別無處置하다가 96년 5월에 1차 내원, 望診상의 특이소견은 없었으며 96년 7월초까지桂枝湯 加味方을 지속적으로 투여한 결과 미세한 개선효과 보임.

#### 證例 5

姓名 : 정 O영, 만 43세, 남.

主訴 : 鼻塞, 鼻涕清涕, 噴嚏, 頭痛, 黃色咯痰.

發病日 : 10여년전.

過去歷 : 20여년전 폐결핵 이환, 완치.

家族歷 : 없음.

現病歷 : 43세 약간 비만한 체격의 남환으로 10여년 전부터 상기증상으로 local ENT에서 알레르기비염 진단 받고 간헐적 치료 받던 중 94년부터 한기에 노출시 증상이 심해짐. 음식의嗜好는 喜溫, 脈象은 沈細, 그 외 진단상 특이점은 없기에 96년 4월 1차 내원시 桂枝湯 加味方을 투여하기 시작했고 침, 광선치료를 병행하면서 2개월여 지속적인 치료 결과 60% 이상의 호전율을 보임.

#### 證例 6

姓名 : 김 O정, 만 21세, 여.

主訴 : 鼻塞, 鼻涕清涕, 噴嚏, 微頭痛.

發病日 : 96년 5월경.

過去歷 : 없음.

家族歷 : 모친- 알레르기 비염.

現病歷 : 21세 약간 마른 체격의 여환으로 96년 5월부터 상기증상으로 본원에 내원함. 음식의嗜好는 喜平, 脈象은 弦細, 舌紅少苔했으며 침, 광선치료를 병행하면서 桂枝湯 加味方을 10여일간 투여, 복용중 증상호전하여 2차례 더 투여한 결과 개선효과 뚜렷함.

#### IV. 考 察

알레르기성 질환은 최근 산업과 문명의 발전으로 생활환경이 오염되고 그에 따라 다양한 起因性 抗原이 배출됨에 따라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sup>16)</sup>

알레르기 반응에서 生體는 항원과 의 접촉에 의해 염증과 조직손상을 초래하는데<sup>21)2)</sup> 염증은 특이한 과정을 거쳐 조직이 손상되는 것으로 유발요인으로는 外傷, 寒冷, 熱, 방사선, virus, 기생충, 항원-항체 반응 등이 있으며 알레르기성 비염이 장기화되면 만성 비염으로 罹患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sup>2)</sup>

알레르기성 비염은 재채기, 鼻內 瘙癢感, 鼻閉塞 및 水性鼻漏가 주증상이며 그 외에 口蓋 瘙癢感, 羞明, 流淚, 頭痛, 倦怠感 및 눈의 瘙癢感 등이 있을 수 있다. 2차 감염이 없는 한 鼻漏의 性狀은 변하지 않고 다수의 好酸球가 포함되어 있다.<sup>9)19)</sup> 그 발병은 갑자기 나타나는 수가 많지만 점진적으로 발현하기도 하는데 이는 IgE, IgG 및 secretoryIgA에 의해 발생하는 면역 반응으로 유전적인 경향이 있다.

알레르기성 비염이 급성적으로 나타나고 花粉이나 곰팡이가 항원으로 작용하여 일정한 계절에만 증상이 局限되는 것을 季節性 알레르기 비염이라 하고 만성적으로 진행되고 집먼지진드기, 동물의 털, 식물류, 진균류 등이 항원이 되어 연중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通年性 알레르기 비염이라 한다.<sup>12)13)</sup>

서양의학에서의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치료방법으로는 回避療法, 對證

療法, 免疫療法이 있는데 回避療法이란 花粉과 같은 起因性 抗原을 차단하기 위해 창문을 닫거나 환기시설을 하는 등의 방법이며 對證療法은 항히스타민제나 혈관 수축제 또는 부신피질 호르몬제 따위를 증상에 맞게 투여하는 방법이고 免疫療法은 起因性 抗原의 양을 서서히 增量하면서 그 항원에 대한 면역능력을 올려주어 증상의 호전이나 적어도 치료약물의 용량의 감소를 시도하는 것이다.<sup>3)</sup>

한방에서 알레르기 비염은 鼻飢, 噴嚏 등의 범주에 속하는데 鼻飢의 '飢'는 鼻流涕의 의미이고 '嚏'는 鼻腔內가 가려우면서 氣가 噴出할 때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한다.

그 발생원인에 대해 劉는<sup>24)</sup> 心火와 邪熱이 陽明에 관여하거나 五臟神華인 눈에 太陽의 直火가 照射되면 心神이 躁亂되어 발생한다고 했고, 李는<sup>25)</sup> 皮毛의 元陽이 虛한 상황에서 겨울에 噴嚏와 鼻流涕가 好發한다고 했으며, 噴嚏는 陽氣가 和利하여 滿於心出於鼻하기에 나타난다고 內經<sup>10)11)</sup>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최근의 문헌<sup>22)</sup>에서는 噴嚏가 발생하는 病因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는, 肺氣虛弱으로 인한 感受風寒型으로 肺는 본래 惡寒의 臟이므로 한냉한 기운에 접촉시 즉각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太平聖惠方'에는 "肺氣通于鼻 其臟若冷, 隨氣乘于鼻, 故使津液流涕, 不能自收也"라 표현했고<sup>22)</sup> 醫宗損益<sup>30)</sup>에는 "鼻飢者 傷風涕一云 屬肺寒"이라 언급함으로써 肺와 風寒邪의 病因病理로 인해 본 질환이

발생함을 서술하고 있다.

두번째는, 脾肺虛弱으로 인한 水濕犯鼻型으로 肺氣는 脾의 水穀精微의 運化로 공급되는데 脾氣가 허약하면 肺氣도 부족하게 되어 肺의 宣降作用의 失調에 따른 津液停滯로 인해 寒濕이 鼻部에 울결되어 본 질환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는 王의 書<sup>21)</sup>에서 “肺爲氣之樞 脾爲氣之源 若脾氣虛弱 不能上輸于肺 肺氣亦虛 肺氣虛則鼻失濡養 又肺主通調水道 脾主運化津液 若肺脾氣虛 則津液輸布失司 水液通調受阻 也可導致本病”이라 서술되어 있다.

세번째는, 腎氣虛弱으로 인한 肺失溫煦型으로 ‘東垣十書’ 에는 “肺者腎之母, 皮毛之元陽本虛弱, 更以冬月助其令, 故病者善嚏, 鼻流清涕, 寒甚出濁涕”라 하여 腎精이 부족하면 腎의 攝納作用을 상실하게 되어 陽氣가 耗散됨으로 인해 寒水가 上泛하여 본 질환이 발생함을 설명하고 있다.<sup>22)</sup>

이들 세가지 病因 외에도 肺, 胃經의 火熱로 인해 鼻軌가 발생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임상에서는 그 빈도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치료면을 살펴볼 때 肺氣虛弱으로 인한 感受風寒時에는 溫肺, 祛風散寒하는 玉屏風散 合 蒼耳子散이 대표적인데 玉屏風散은 黃芪, 防風, 白朮의 세가지 약물로 구성되어 있어 益氣, 固表함으로써 면역기능 개선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sup>23)</sup> 蒼耳子散은 辛散風邪하고 芳香性으로 通竅한다.

脾肺虛弱으로 인한 水濕犯鼻時에는 健脾, 補肺, 益氣시키는 補中益氣湯,

小青龍湯類의 방제가 多用되는데<sup>24)</sup> 최근 중국에서는 噴嚏症의 치료에 小青龍湯 合 玉屏風散을 널리 運用하고 있다.

腎氣虛弱으로 인한 肺失溫煦時에는 益腎元陽, 納氣의 목적으로 六味地黃湯, 金匱腎氣丸類의 처방을 多用한다.

이상에서 알레르기성 비염은 寒冷한 기후조건, 卽 感受風寒時 증상이 심해지는 것이 일반적임을 기술하였는 바 桂枝湯 加味方은 이러한 遇寒風激刺則 甚해지는 噴嚏症에 사용할 수 있다. 桂枝湯은 傷寒論의 辨太陽病脈證并治上에 기재되어 있는 처방으로 桂枝, 芍藥 各 6g, 甘草 4g, 生薑, 大棗 各 6g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方中 桂枝의 味는 辛하고 氣는 溫하니 辛으로 능히 發散하고 溫으로 衛陽을 통하니 解肌, 祛風, 散寒의 功이 있으며 芍藥은 味가 酸하고 氣가 寒하니 酸寒으로 營分을 收斂함으로 桂枝와 芍藥이 協力하여 解肌하되 傷陰하지 않게 한다. 生薑은 辛味로써 桂枝의 解肌泄邪시킴을 돕고, 大棗는 甘味로써 芍藥의 和營益陰 작용을 돕고, 甘草는 甘平으로 모든 약을 調和시킨다.<sup>23)</sup>

噴嚏症의 치료를 위해서는 桂枝湯에 葶藶子, 蟬退, 烏梅, 防風, 辛夷類의 약재를 배합하는데 葶藶子は 味는 辛苦, 氣는 寒하며 瀉肺定喘, 行水消腫의 효능이 있어 痰涎壅滯, 咳嗽氣喘, 面目浮腫, 胸腹積水而小便不利에 응용하고 蟬退는 味는 鹹甘, 氣는 寒하며 散風熱, 宣肺利咽喉의 효능으로 外感風熱性 風疹, 面赤腫痛, 驚癇 등의 치료에 응용되는데 葶藶子와 蟬退는 과

민성을 약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烏梅는 味는 酸澁, 氣는 溫한데 斂肺, 瀉腸, 生津의 功效로 久咳不止, 久瀉久痢, 虛熱口渴 등에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防風은 味는 辛甘, 氣는 微溫한데 祛風發表, 勝濕解痙의 작용으로 外感의 肝風內熱, 風濕痺痛, 四肢痙攣 등을 治한다. 또한 辛夷는 味는 辛하고 氣는 溫하여 祛風通竅하므로 鼻淵, 鼻塞, 流涕腥臭 등의 치료에 널리 응용되어져 왔다.<sup>6)</sup>

本人이 桂枝湯 加味方을 遇寒風激刺則甚噴嚏症에 투여시 증상의 호전율은 대략 80% 이상이었으며 다만 환자의 主訴症에 따라 약물용량은 약간의 변동이 있었음을 밝혀 둔다.

本論稿에 발표하는 證例는 그 중 대표적인 6例였으며 이를 근거로 볼 때 사회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점점 증가추세에 있는 알레르기 비염의 한 의학적 연구와 임상경험의 普遍的인 集大化가 절실히 요구된다.

## V. 結 論

暎園大學校 附屬 韓方病院에 1996년 3월부터 1996년 10월까지 寒氣에 노출시 증상이 특히 심해지는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 桂枝湯 加味方을 투여한 결과 다음과 같은 有意한 결과를 얻었기에 證例와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或 침, 광선치료도 병행함)

1. 遇寒風激刺則甚噴嚏症에 桂枝湯

加味方을 투여시 증상의 호전율은 대략 80% 이상이었다.

2. 한방치료에 의해 우수한 예방 및 치료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噴嚏症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연구와 임상경험의 普遍的인 集大化가 요구된다.

## 參考文獻

1. 康秉秀 : 漢方臨床알레르기, 서울, 成輔社, p.13, pp.22-23, 187-201, 1988.
2. 大韓皮膚科學會 : 皮膚科學, 서울, 麗文閣, pp.17-20, 29-35, 1990.
3. 白萬基 : 最新耳鼻咽喉科學, 서울, 一潮閣, pp.192-195, 1992.
4. 醫學教育研修院 : 家庭醫學,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684, pp.248-250, 604-607, 612-613, 1988.
5. 李文鎬 外 : 內科學, 서울, 박애출판사, pp.2050-2052, 1977.
6. 李尙仁 : 本草學, 서울, 修書院, pp.158-159, 211-212, 215-216, 221-222, 323-324, 1981.
7. 李淵台 : 最新免疫學, 서울, 集文堂, p.367, 369, pp.27-28, 1982.
8. 丁圭萬 : 알레르기와韓方, 서울, 圖書出版 第一路, p.19, 31, pp.15-17, 25-26, 98-102, 108-111, 1990.
9. 蔡炳允 : 漢方眼耳鼻咽喉科學, 서울, 集文堂, pp.245-248, 1989.
10. 許浚 :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p.122, 1967.
11. 洪元植 編 : 精校黃帝內經, 서울,

- 東洋醫學研究院, p.17, 19, 30, 139, 142, 146, 149, 177, 180, 245, 262, 274, 1981.
12. 康哲榮 : 알레르기의 免疫學的 背景, 大韓小兒科學會誌, 21:3 - 7, 1978.
13. 박인용 : 월간 임상약학, 서울, Vol. 11, No. 4, pp. 53-58, 1991.
14. 孫炯宰, 蔡炳允 : 黃連通聖散 및 加味防風通聖散의 效能에 關한 實驗的研究, 서울, 慶熙醫學 5(2), 1989.
15. 宋永林, 金喜澤, 盧石善 : 荊芥連翹湯加味가 알레르기성 鼻炎에 미치는 效能에 關한 臨床報告, 大韓外官科學會誌, Vol.8, No.1, pp.163-176, 1995.
16. 李宗宇 : 犀角消毒飲 및 犀角消毒飲加味方의 抗알레르기에 關한 實驗的研究, 慶熙大學校 大學院, 1992.
17. 鄭昇杞 : 알레르기疾患의 韓方療法, 大韓韓醫學會誌, 11:2, pp.11-15, 1990.
18. 蔡炳允 : 加味通竅湯 投與患者의 臨床的研究, 서울, 慶熙醫學 2(2); 255-260, 1986.
19. 蔡炳允 : 噴嚏症에 關한 臨床的研究, 서울, 慶熙醫學 4(3); 297-303, 1988.
20. 上海中醫學院 : 中醫外科學, 香港, 商務印書館, pp.105-108, 1981.
21. 接琴 : 傷寒來蘇集, 서울, 一中社, pp.11-24, 1992.
22. 王德鑒 : 中醫耳鼻咽喉口腔科學,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p.39-40, 1985.
23. 汪昂 : 醫方集解, 서울, 大成文化社, pp.109-117, 1992.
24. 劉完素 : 河間三六書, 서울, 成輔社, pp.275-276, 1976.
25. 李杲 : 東垣十書, 서울, 경희대 한의학부, p.1, 18, 1973.
26. 張介賓 : 景岳全書, 서울, 驪江出版社, pp.573-575, 1987.
27. 張民慶 主編 : 五官科病實用方, 江蘇科學技術出版社, pp.361 - 372, 1993.
28. 何東燦 : 中醫耳鼻咽喉科學, 台北, 正中書局, pp.209-218, 1984.
29. 何倫 外 : 實用處方綱目, 陝西科學技術出版社, pp.37-40, 1990.
30. 黃道淵 : 醫宗損益, 서울, 醫學社, pp.126-127, 1976.